

<동정자료>

맹성규 2차관 ‘안전 최우선… 인프라 복구에 만전’ 당부 포항역·포항IC 등 인프라 피해상황 점검하고 안전복구 철저 당부

-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10시 40분경 어제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역, 대구~포항 고속도로를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제일 먼저 찾은 포항역사에서는 소방용수관 파열, 천장 마감재 탈락, 외벽 균열 등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주문했다.
- 이어, 대구~포항고속도로 포항 IC를 방문하여 피해교량의 교량받침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, “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강등 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업무에 임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이후, 12시 20분경 포항시청에서 국무총리가 이끄는 현장방문단에 합류하여 포항여고, 대성 아파트, 한동대학교 등 포항지역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.

2017. 11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